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하마터면 문힐 뻔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그토록 반대하던 개헌을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 나왔을 때 그랬다. 이제 온통 개헌 논란으로 날을 지새 판이었다. 하지만 하루도 못 가서 잠잠해졌다. 태블릿 피시 때문이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어서 몇 달 동안 자고 나면 캄캄캄 캄 캄, 별의별 게 다 쏟아져 나왔다.

언론이 모처럼 할 일을 했다는 칭송이 따랐다. ‘쓰레기 더미 속의 보석’을 발견한 그 방송사의 앵커는 더욱 인기가 높아졌다. 그동안 ‘기레기’ 소리를 들었던 다른 기자들도 덩달아 기를 펴 수 있게 됐다. 세상 언론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었기에, 때로는 권력의 칼에 때로는 자본의 칼에 휘어지고 꺾이는 펜도 많았기에.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펜’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났다. 공무원들이 승진에 목숨을 건다면, 기자들은 특종을 위해 온몸을 바친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닭 한 마리를 놓고 열을 끓은 사자’처럼 달려든다. (여기에서의 닭은 그 닭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들)

오래된 옛날 일선 기자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랬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때로는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다. 빈 사무실에 들려 서랍 속을 뒤진 뒤 서류를 훔쳐 오는 일도 다반사였다. 지금 같으면 바로 절도죄로 수갑을 잘 일이다. 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능한 기자로 찍히던 시절이었다. 글만 잘 쓴다고 기사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 ‘멘탈’이 강해야 했다. 시쳇말로 ‘조지는’(비판하는) 기사를 쓰고도 미안한 마음 같은 것을 가지면 안 됐다. 직업윤리?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유라 체포와 보도윤리

근래 직업윤리 또는 보도윤리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 체포 소식 때문이었다.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어느 종편 기자의 신고로 체포됐다. 방송사는 체포 현장을 단독 보도했다.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가 특종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혹시 ‘기자는 관찰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기자윤리를 저버린 것은 아닐까.

두 가지 예화를 들 수 있겠다. 우선 저 유명한 한

장의 보도사진을 보자. 아프리카의 참상을 알린 케빈 카터의 ‘독수리와 소녀’. 몇 년 전 ‘폴리처상 사진전’이 광주에서도 열린 적 있으니 직접 보신 분도 많을 줄 안다. 이 사진에는 자연이 있다. 20여 년 전 일이다. 사진작가 케빈은 내전 중인 수단을 찾았다. 어느 날 그는 사체를 먹고 살아가는 한 마리 커다란 새를 발견했다. 그 새 앞에는 배가 고파 힘없이 주저앉은 어린 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케빈은 본능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은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에게 폴리처상의 영예를 안겼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죽음 앞에 놓인 소녀를 외면했다는 비난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자는 사건을 보도만 할 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등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자윤리 말고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윤리를 요구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CNN의 뉴스 앵커 앤더슨 쿠퍼다. 그는 지난 2010년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에서 생중계 중이었는데도 갑자기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던지고 흙더미 속에 묻힌 소년을 구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감동했다. 만약 그가 소년을 버려둔 채 셔터만 눌렀다면 어땠을까. 물론 ‘아이를 구조하는 일은 구조대에 맡기고 기자는 그 장면을 보도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른바 중립성의 원칙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국가 안위가 걸려 있거나 생

명의 위협이 있을 때, 바로 쿠퍼 기자의 경우다.

사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케빈도 사진만 찍고 나서 현장을 훌쩍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랬다면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정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찍은 뒤 소녀를 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가 나중에 자살을 택한 것은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전쟁 트라우마와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충도 안 들고 전쟁터 나가나

그렇다면 최근 종편 소속 기자가 정유라의 소재를 신고한 뒤 체포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그녀를 체포하지 않는다 해도 타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도 아니었던 상황. 그러니 중립성의 원칙과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반했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취재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는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나는 ‘언론의 취재 윤리 조항을 교조적으로 받들 필요는 없다’는 옹호론에 동조한다. 그것은 내가 특종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구닥다리 기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특검과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위한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도윤리를 일부 절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하튼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자들이 어느 정도 공로를 세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아니라 새해 벽두부터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늘어놓던 대통령 앞에 들러리(?)를 섰던 청와대 출입기자들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리에 가서 대통령의 뻔한 거짓말에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할 바에는 무엇 하러 나갔나? 더군다나 기자에게는 ‘무기’와 다름없는 노트북과 녹음기 등을 빼앗긴 채였으니. 충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꼴 아닌가. 아무래도 출입기자들이 순치(馴致)된 건 분명한 것 같다. 길들여졌다는 뜻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듣자 하니 박 대통령은 다가오는 설 이전에 기자간담회를 한 차례 더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만은 출입기자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하나 마나한 소리’를 거듭해서 지겹게 들을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병풍 노릇 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내 친구 한 명은 나를 만날 때마다 “그고, 기자놈들이 문제여”라는 말을 자주 한다. ‘기자’(술 ‘記’,놈 ‘者’)라는 단어에는 이미 ‘놈’ 자가 들어 있는데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놈’ 하나를 더 붙여 ‘기자놈’ ‘기자놈’ 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노트북 소지 금지 요청에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던 기자들, 앞으로 또 다시 것처럼 ‘순한 양’이 된다면— ‘기자놈’ 소리 백번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 ‘맨부커상’ 한강에 축전 거부”

특검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에게 대통령 명의의 축전을 보내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한강의 맨부커 수상 이후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사실을 파악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박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문제부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축전 보내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한강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소설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강은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이후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피의자 출석 이재웅에 쏘린 눈

확인한 만큼 작성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격적인 작성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

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이날 새벽 구속됐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운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한국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 참석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한국신문협회 부회장)는 12~1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신문협회 2017년 발행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팀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신문경영전략’을 주제로, 김사승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뉴스비즈니스전략 구성의 전환’에 대해 각각 발표한 뒤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발행인들은 또 최근 시국 흐름에 대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전국의 대표적인 일간신문과 통신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일보가 유일한 회원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리퍼트 美대사 떠난다 20일 이임 출국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는 20일 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2일 “리퍼트 대사가 20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20일은 트럼프 정권 인수위가 오바마 행정부의 정무직 재외공관장들에게 주재국을 떠날 것을 요구한 시한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는 최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해외주재 미국대사들에게 20일까지 모두 주재국에서 떠날 것을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리퍼트 대사는 13일 한국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회를 밝힌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5일 리퍼트 대사의 승별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불과 1시간 가량 앞두고 “긴급한(urgent) 상황이 발생했다”며 행사를 연기해 트럼프 측의 출국 지시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리퍼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비서실장,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을 거쳐 만 41세였던 2014년 10월 역대 최연소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험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채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셀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셀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남치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상백나무뿌리) 캡슐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담양 대덕 호두농장

◆ 식용호두 · 호두목료 분양판매 ◆

무公害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담양 대덕의 특산물로서 부모님 효도선물, 명절선물로 최고입니다!!

어린이들 머리에도 좋은 호두 하루 3~4알로 건강을 지키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안전성 검토 무농약 인증

2016년 산림청장상 수상

담양 대덕 호두농장
061-382-4728/010-3604-6712